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2. 29(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한경필 주무관 송지영 (Tel. 044-200-2742 / 2744)
<b>엠바고</b>	<b>2월 29일 16:30분(행사종료) 이후 사용 / 격려사 별도 배포</b>		

##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직자, 정부포상 영예

-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 위해 모범 공직자 매년 선발 중

-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금융사기 해결사', 금융감독원 조성목 국장
- 어려운 이웃의 집 지어주고 보일러 고쳐 준 '맨손봉사 달인', 여주시청 최양희 과장
-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 의정부시 '오지라퍼', 김정미 사회복지주무관

□ 일선 행정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선행을 실천해 온 우수·모범공직자 44명\*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2.29(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모범공직자 44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 (총44명) △훈장 2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19명 △국무총리표창 19명

※ (참석) 포상수상자 44명 외 가족·친지·직장동료 등 150여명

□ 이날 수여된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포상'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 일선 행정현장에서 청렴·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선행을 베풀거나, 부패척결에 앞장 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고 있다.

□ 수상자 중 최고등급의 포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의 조성목 국장(54)은 5대 금융악 척결 종합계획 추진을 총괄하면서,

-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음성)를 공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 조 국장은 자타 공인 ‘서민금융전문가’이면서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투입된 ‘해결사’다.
  - 그는 남들이 꺼리는 업무를 맡으면서도 ‘서민의 자식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또 다른 훈장 수상자인 여주시청 최양희 사회복지과장(56)(옥조근정훈장)은 수십년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실천해 온 ‘맨손봉사의 달인’이다.
- 최 과장은 휴경지를 경작해 생산한 쌀을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외부의 지원 없이 직접 독거노인의 주택을 지어주는 등 지역사회의 숨은 일꾼이다.
  - 그는 ‘기술이 좋은 전문가는 아니어도 부족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의 봉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 외에도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장애인 사물놀이패를 결성하고,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부시의 대표 ‘오지라퍼’인 김정미 사회복지 주무관(53) 등이 포상을 받는다.
- 황 총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포상을 수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 붙임1 : 주요 수상자 소개(3명)  
 붙임2 :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자 명단(44명)

## ①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54세, 국민훈장 목련장)

‘그놈 목소리’제안의 주인공, 해결사 조성목 국장

- 고리사채피해 예방 및 서민금융지원 기틀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 척결 등 -

금융감독원 조성목 국장은 자타 공인 ‘서민금융전문가’이면서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투입된 ‘해결사’로 통한다.

조 국장은 2001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리사채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각종 서민금융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서민 금융업계의 산 증인이다. 고리사채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수많은 협박도 받아 왔다.

대부업법 제정, 휴면예금을 활용한 미소금융제도 제안, 한국이지론 설립, 희망홀씨·햇살론 등 각종 서민금융상품 제안 등이 그의 현장 경험에서 나왔다.

또한 2012년에는 빚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다가 ‘머니힐링’이란 책을 쓰고, 인세 수입 전액(1천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5대금융악 척결대책’을 총괄하면서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음성) 공개를 전격적으로 실행하여 연간 2천억원이 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5백억원대 수준으로 감축되는 등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그에게 왜 험하고 궂은 일들만 했느냐고 묻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수명이 길지 않느냐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본인도 ‘서민의 자식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언제 어디에 있던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② 경기도 여주시청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56세, 옥조근정훈장)

### ‘맨손봉사의 달인’ 최양희 과장

- 어려운 이웃에게 쌀 농사해 나눠주고, 집 지어주고 보일러 고쳐주는 맨손 일꾼 -

여주시청 최양희 과장은 생활의 달인이다. 전문가도 아닌데 보일러를 고치고 양수기도 수리한다. 쌀농사를 짓고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고 심지어는 집도 직접 짓는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이웃들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잘했던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을 쪼개 그가 직접 배운 것이다.

그가 처음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한 할머니 집의 보일러가 고장나 불편을 겪고 계셨다. 그는 기술도 돈도 없었지만 공휴일과 야간을 이용해 무작정 고치기 시작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다 고치고 작동이 되자 기뻐하시는 할머니를 보고는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이 느껴졌다고 한다.

고장 난 보일러 고치기로 시작된 봉사는 보일러, 도배, 방풍작업 등 작은 일로 이어지다가 농업용 전기양수기 수리, 지붕교체, 입식부엌 개량 등 집수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휴경지에 쌀농사를 지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가 마을에 흙벽돌로 지어진 집의 벽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번에는 집을 지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는 그 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에게 ‘기술도 돈도 없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기다려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한 달간 공사를 해서 결국 집을 지어냈다.

그는 할머니가 입주하실 때 기뻐하셨던 모습이 ‘평생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기술이 좋은 전문가는 아니어도 부족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상생활처럼 해왔던 일로 수상의 영광을 누리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③ 경기도 의정부시 보육정책팀장 김정미 (53세, 근정포장)

의정부시 대표 ‘오지랴퍼’ 김정미 사회복지 주무관  
-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 사회복지 전문가 -

의정부시청 김정미 보육정책팀장은 오지랴가 넓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정부의 지원이 어렵더라도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이다.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해왔다.

김 팀장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 공직 초기부터 알고 지냈던 장애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사물놀이패를 결성하고, 인문학교육을 실시해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내 13평의 좁은 공간에서 아홉 식구가 생활하며 층간소음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장애가족을 3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자활업무를 담당할 때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00여명을 일일이 상담해 208명을 취업시키고, 무료간병 자활사업단을 유료로 전환시켜 200여명을 탈수급시키기도 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기준의 한계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분을 지역자원을 발굴해 도와주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는 그는 ‘항상 묵묵히 고생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표해서 받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의 오지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담심리학을 활용해 퇴직 이후에도 이웃들을 돕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포상훈격
1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국민훈장목련장
2	경기도 여주시	지방행정사무관	최양희	옥조근정훈장
3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정미	근정포장
4	해양수산부	기술서기관	김선우	근정포장
5	환경부	환경사무관	박영신	근정포장
6	관세청	행정사무관	유태수	근정포장
7	서산경찰서	경위	김권환	대통령표창
8	경상남도	지방행정주사	배효길	대통령표창
9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지방소방경	정광훈	대통령표창
10	전라남도 강진군	지방행정주사	조경언	대통령표창
11	서울중부경찰서	경정	이상엽	대통령표창
12	광명북중학교	교사	박인숙	대통령표창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	신형만	대통령표창
14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재숙	대통령표창
15	경기도 구리시	지방행정주사	김용직	대통령표창
16	국무총리비서실	서기관	이태정	대통령표창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	김동일	대통령표창
18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주사	남경탁	대통령표창
19	중소기업청	행정사무관	유승우	대통령표창
20	우정사업본부	행정주사	김필성	대통령표창
21	행정자치부	시설주사	오현문	대통령표창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포상훈격
22	서울서초경찰서	경감	최진수	대통령표창
23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한경종	대통령표창
24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이영인	대통령표창
25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오진수	대통령표창
26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위	송치영	국무총리표창
27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충노	국무총리표창
28	전라북도 순창군	지방시설주사	정영호	국무총리표창
29	한국해양대학교	공업사무관	이동한	국무총리표창
30	서울수서경찰서	경위	최보연	국무총리표창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무주사	서천천	국무총리표창
32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범	국무총리표창
33	용성초등학교	교사	천완이	국무총리표창
34	경기도 안산시	지방녹지서기	신이식	국무총리표창
35	충청남도 서천군	지방행정사무관	한덕수	국무총리표창
3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주사	김인수	국무총리표창
37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주사	이재곤	국무총리표창
38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과장	양수형	국무총리표창
39	부산광역시	지방시설주사	이상용	국무총리표창
40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김성주	국무총리표창
41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임동선	국무총리표창
42	조달청	행정사무관	이주현	국무총리표창
43	국세청	행정사무관	이상원	국무총리표창
44	한국환경공단	과장	한명수	국무총리표창